

2016년 1학기

여성학

경상관 02310호

남성성과 폭력 / 연애와 폭력

여성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
이런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감, 이해가 필요한데
성폭력 유발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듯이
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 이 문제이다.

1. 성관계? 성폭력?

- * 성폭력: ‘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 or 성적 행위’-
개인적 차원이 아닌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
- > 성폭력: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잠정적 폭력의 대상이 될
수 있다는 ‘공포 정치’를 수반=> 성폭력은 전 여성에 대
한 성통제로 확대

개인의 문제인가
사회구조의 문제인가

남성성의 모습을 규정 해 놓고
그런 부분을 남자들의 특성이라
규정하면서
정당화 하는 과정이 들어있다.

성폭력이라는 큰 범주속에
추행, 희롱이 들어가는 것임

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
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
“권력관계”에 의해 발생하는
구조적인 문제이다

2. 이성애 제도 내에서 성적 강제/동시에 관한 쟁점

i) 동의 vs 강제: 물리적 강제 없이 일어난 성을 동의한 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- 순응 이외 대안이 없을 때 강제라고 보아야 할 것

=> 거부하지 못한 것이 ‘동의’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됨

* ‘성폭력 연속선’ 개념 성립: 성폭력 vs 성관계 구분 모호한 문제 발생(ex. 강력하게 저항해야 성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)

ii)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성적접근은 동의한 성인가?— ‘연인’/‘부부’관계에서 남성들은 여성이 원치 않는 관계를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음

현재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성적으로 수동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때문에 발생하는 것.
유교문화권에서 거부/거절의 방법을 충분히 교육하는 과정이 병행되면서
거절의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구분 할 수 있는 남성들의 인식변화또한 반드시 필요하다

연애 시대에 대한 성찰

* **연애**: 결혼/이성애 핵가족으로 이어지는 근대 사적영역 구성에서 중요한 위치 차지-> 연애를 규정하는 것은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

* **연애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**

- 낭만적 사랑의 신화- 남녀 연인간 권력관계 은폐하고 낭만화함을 비판

연애에 연인간 권력관계가 존재하는데
이를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로 정당화하고
은폐하고 낭만화 하는것이 문제이다.

*** 가부장제 사회의 연애 각본-성별화된 연애각본**

- 연애/데이트 비용 남성부담: 상대에 대한 호감을 의미하는 풍조 + 남성이 여성의 생계부양자 & 사회적 보호자라는 성역할 의미 내포
- 남성에 대한 여성의 호감표시: 외모 가꾸기

*** 데이트 성폭력: 여성의 몸에 대한 접근권이 남성에게 주는 선물이 된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혼란**

*** 평등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제언- 차이를 인정해주는 상호 존중과 배려, 민주적 의사소통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 중요**